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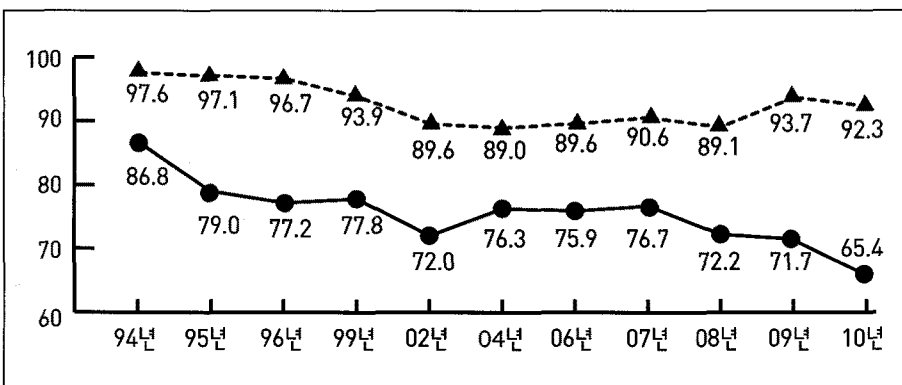
2010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 결과 전자책 및 공공 도서관 이용 큰 폭으로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과 초·중·고등학생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국민독서 실태 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출판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가구 방문 개별 면접)과 초·중·고등학생 3천 명(학교 방문 자기기입식 조사)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 ~ 12월에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성인 $\pm 3.1\%$, 학생 $\pm 1.8\%$ 이다.

'2010 국민독서 실태 조사' 결과, 만 18세 이상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은 2009년보다 6.3% 감소한 65.4%로 나타나 책을 읽는 사람들(독서 인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책을 읽는 성인들은 더 많은 책을 읽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중·고등학생들의 한 학기 독서량은 증가했는데, 특히 초등학교의 한 학기 독서량은 지난해보다 약 2권 정도 증가하여 조사 개시(1993년) 이래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는 2010년에 한 학기 당 29.5권의 책을 읽은 것으로 기록됐다.

〈독서율 변화 추이(전체)〉(단위 : %)



성인 독서를 하락, 책 읽는 사람의 독서량은 증가

성인 10명 중 1년에 일반도서(만화, 잡지 제외)를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은 2009년 7.2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6.5명으로 2009년보다 0.7명가량 줄었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비독서 인구는 성인 10명 중 2.8명에서 3.5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책을 읽는 사람은 보다 많은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책을 읽는 성인들의 독서량은 전년도보다 1.3권 증가하였고(2009년 15.3권 → 2010년 16.6권), 독서 시간(평일 기준 10분 증가) 및 도서 구입비(1400원 증가)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책 읽기를 가로막는 것은 시간 부족과 좋지 않은 독서 습관

성인 및 초·중·고등학생 모두 '일·공부 때문에 바빠서', '독서 습관이 부족해서' 책을 많이 읽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또 성인의 과반수(56%)가 '책 읽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고, 학생들의 절반(49%)은 '본인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독서 생활화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e-book) 이용 확산

지난해부터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전자책의 이용률은 성인 11.2%, 초·중·고등학생 43.5%로 나타나 학생층을 중심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이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성인은 2배, 학생은 3배 정도씩 증가했다. 휴대전화에서의 전자책 이용률이 성인 14.3%, 학생 25.5% 등으로 나타나는 등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전자책 이용이 젊은 세대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 공공도서관 이용률 2000년 이후 최고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성인은 2.6% 증가한 29.2%, 학생은 12.6% 증가한 65.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중·고등학생들의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이 전국적으로 증설되고 장서가 충실해지면서 나타난 순기능으로 해석된다.

성인 도서 구입비 월 1만원 수준

지난 1년간 단 1권의 책을 읽은 성인 독서자는 1인당 월 평균 98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학생들의 한 학기(3월~8월) 도서 구입비는 '일반도서' 3만 원, '참고서' 6만8천 원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관심도가 자녀의 독서량 좌우

자녀의 독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가 자녀의 독서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서량이 많은 학생일수록 부모님이 본인의 독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학생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 학기 독서량이 21권 이상인 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자신의 독서에 관심을 보인다'는 응답이 65%인 반면, 독서량이 전혀 없는 학생의 경우 그 응답 비율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아침 독서' 시행 학교 학생 독서량이 비시행 학교보다 2배 많아

초·중·고교에서 1교시 수업 전에 학교 재량으로 '아침 독서'를 실시하는 학교(약 55%) 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은 20.3권으로, '아침 독서' 비시행 학교 학생의 독서량 11.8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아침 독서'가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독서량 증대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학교에서 교사의 독서 권장률은 평균 54.5%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에서 독서 관련 교육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3.4%나 되어 학교 독서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활용 시 독서의 비중

성인 여가 시간 활용 중 독서 비중은 4.5%로 조사되었다. 성인 여가 활용은 텔레비전 시청(28.7%), 인터넷(12.7%), 수면·휴식(9.5%), 운동(6.9%), 모임·만남(5.6%) 순서로 나타났다.

직장 도서실이 직장인의 독서량에 영향 끼쳐

성인들 중에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책을 빌려 볼 수 있는 도서실이나 자료실이 있다는 응답은 약 6%에 불과했으나, 직장에 도서실이 있을 경우 도서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83.8%로 매우 높았다. 직장 도서실은 독서량에도 영향을 미쳐, 도서실이 있는 직장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12.9권으로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 10.8권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 '독서 접근권 증대' 바라

성인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의 독서 장려를 위해 '도서관 증설 및 장서 확충(32.8%)', '독서 진흥 예산 확대(18.7%)', '대중매체의 책 관련 정보 제공 확대(16.5%)' 등 보편적인 독서 접근권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외 계층 독서 지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34.8%)', '독서 장애인의 독서활동 지원(20.1%)'의 순서로 나타났다. G